

경제통계의 새로운 시작,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전환

Column

경제통계국장 **이운선** / 경제학 박사

경제총조사는 경제활동 전 분야에서 모든 경제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이다. 우리나라도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 등을 파악하고자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첫 조사 이후 2016년, 2021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사업체의 비밀 보호 의식 강화, 응답 부담 등의 이유로 조사 불응이 많고 행정자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예산 제약 심화 등 국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통계 생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총조사 역시 등록센서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제등록센서스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기업통계등록부(SBR)와 같은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매출액, 영업비용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통계조사를 말한다. 등록센서스는 다시 완전등록센서스(register based census)와 부분등록센서스(register assisted census)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등록센서스는 오로지 행정자료만을 연계·활용하여 총조사를 대체하는 방식이며, 부분등록센서스는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고 현장조사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경제총조사를 등록센서스로 전환하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행정자료를 적극 공유·활용함으로써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각 사업체에서 이미 정부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통계조사를 위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경제총조사에 대한 응답 부담의 감소뿐만 아니라 통계자료 생산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법·행정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기초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를 단축하여 모집단과 경제구조의 총량 정보를 1년 주기로 제공하므로 시의성이 향상되어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시행도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행정 효율화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등록기반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였다. 전국 약 667만 개의 사업체 중 5인 이상 사업체, 광업·제조업과 같이 중요도가 높은 산업, 행정자료와 일치율이 낮은 산업 등을 비롯하여 약 330만 개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예산이 650억 원가량 소요되었다. 기존 조사처럼 667만 개 사업체 모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추정되는 소요 예산이 1,000억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대략 350억 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2021년 등록기반 경제총조사]



* 종사자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

※ (행정자료 확대 추진)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 12개 공통조사항목 (100% 행정자료 대체)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산마감월 등 4개 공통조사항목

하지만 등록기반 경제총조사의 경제등록센서스 전환에 따른 한계도 있다. 경제등록센서스를 추진하려면 주요 항목의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을 행정자료로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행정자료의 추가 입수와 행정자료의 산업 분류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조사항목도 있어 현재 공표되는 모든 항목을 다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려면 표본조사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경제총조사를 완전 등록센서스로 전환하려면 다양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확보하는 문제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모두의 경제등록센서스 지향 노력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진전되어 예산 절감이나 응답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경제통계 간 정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